

[신동아] 창간사

[신동아] (1931년 11월호)

조선민족은 바야흐로 대각성, 대단결, 대활동의 효두에 섰다. 사업적 대활동의 전구는, 사상적 대운양은 민족이 포함한 특색있는 모든 사상가 경륜가의 의견을 민족 대중의 앞에 제시하여 활발하게 비판하고 흡수케 함에 있다. 이러한 속에서 민족대중이 공인하는 가장 유력한 민족적 경륜이 발생하는 것이니 월간 [신동아]의 사명은 정히 이것에 있는 것이다. [신동아]는 조선민족의 전도의 대경륜을 제시하는 전람회요, 토론장이요, 온양소다. 그러므로 [신동아]는 어느 일당 일파의 선전기관이 아니다. 명실이 다같은 조선의 공기다. (하락)